

목적사업비, 경상운영비로 전환

도교육청, 내년부터 시행 전환사업 총 36개... 학교자치 강화·교육재정 업무 간소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다. 이미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중 진행함으로써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로 학교에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로 거쳐야 하는 등 업무차질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경상운영비로 전환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

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우리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모사업 수를 줄이고 참여 학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공모사업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상운영비로의 전환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친화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박형택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대표로 참석해 인증서를 받고 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정 교육 실현

도교육청, '청렴친화기업' 42곳 선정 인증식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친화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손님맞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송분야 청렴친화기업으로 선정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식을 갖고 '청렴친화' 인증서와 청렴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청렴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청렴인증제'는 교육활동 중 위탁용역(현장체험학습 운송 등)으로 이뤄지는 분야에 대한 부패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운송분야의 청렴친화기업은 학교 추천과 공개검증 단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공시 내용을 반영, 총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인증식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생활활동 시간을 고려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박형택 이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공정한 직무수행 ▲청탁금지법 준수 ▲금품·향음·편의 제공 금지 준수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분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정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며 "민간기업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교육환경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야기가 있는 코딩' 부안교육문화회관서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조창근)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림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코딩을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서와 함께 그림책 읽기 자판기, 바나나 껌집만 쓰면 팬텀아, 빌레 하는 할아버지, 진짜 부엉 인간을 읽은 후 다양한 공작 재료를 사용해 코딩 전문 강사와 함께 관련 작품을 만들고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프로그래밍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조창근 관장은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의 나래를 펼치고 융합 사고력을 갖춘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기자·부안=김석진기자



이수빈·이현이 선수(사진 왼쪽)와 조세혁 선수(오른쪽).

전북 테니스 꿈나무들, 전국대회서 맹활약

이수빈·이현이, 복식경기 우승... 조세혁, 준우승 차지

전북체육회는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7회 비탈락 전국 남녀중고등학교 테니스 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중부 단식경기에 출전한 이현이(전북체육)는 결승전에서 한가연(성크론A) 선수에 8대0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다.

이현이는 기세를 몰아 이수빈과 함께 출전한 복식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정은성 기자

또 남자 테니스 기대주 조세혁(전일중)도 결승에 진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북테니스협회 김우연 회장은 "무더운 속에서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다"며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이와 조세혁은 다음달 체코에서 열리는 국가대표전인 U-14 월드컵 테니스대회에 출전한다. /정은성 기자



권역별 대학원격

교육지원센터 운영

전주비전대, 전북대와

학점교류 업무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가운데)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전대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홍순직 총장, 설근수 혁신교육개발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전북 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대학 간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류 ▲원격수업에 관한 용역 사업 등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기치 창출형 대학 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온라인 강의 제작 스튜디오와 VR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원격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과 메타버스(Metaverse)기반의 첨단 미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 수영선수들

전국대회 성적 '우수'

전북체육회는 최근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전북 수영선수들이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북체육회 소속 수영팀이 이번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김혜진은 평영50m와 1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고,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정민은 접영1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윤정은 배영 200m와 100m에서 각각 1·2위를 기록했고, 박나리는 접영 1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단체전에서도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주시청 수영팀도 선전했다. 김민석은 대회 신기록으로 개인혼영 400m 1위, 접영 200m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성웅은 배영 200m와 100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체고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조현재는 평영 100m에서 1위를 정태민은 개인혼영 50m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윤인수는 자유형 50m에서 2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인 혼계영 200m에서는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북수영연맹 오화섭 회장은 "전북 수영 선수들이 제 기량을 선보이면서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속에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도와 준 전주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기사랑 장학생 선정

전북대 이정한씨

전북대학교 이정한씨(전기공학과 4년)가 대한전기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기사랑 장학생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학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전기학회 제1회 전기사랑 장학생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 분야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전기공학 전공 학과 3~4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를 위해 7개 기관에서 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했으며, 이를 통해 이정한 학생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정한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바르고 전공 성적이 우수하며 학업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e-모빌리티용 모터



제어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씨는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 덕분에 이번에 전기사랑 장학생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학회가 장학생 제도를 시행한 취지에 걸맞게 학업뿐 아니라 연구에도 집중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및 전주시와 오펜지플래닛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인 '가넷'이 최근 대학가 일원에서 플라마켓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졸업생 스타트업 기업 가넷

대학가 플라마켓 행사 '큰 호응'

'싸이월드' 테마 중심

포토존 등 이벤트로

방문객들 '이목집중'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및 전주시와 오펜지플래닛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인 '가넷'(대표 김형주)이 최근 대학가 일원에서 플라마켓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기업은 전북지역 수공예 작가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공방에서 운영되는 원데이 클래스 등을 편하게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인 '미미넷'을 운영 중이다.

'미미넷'은 현재 70명이 넘는 작가들이 플랫폼에 등록돼 있으며, 지난 5월 정식 오픈과 동시에 누적 방문자가 약 2만 명을 달성하며 지역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가와 시민을 잇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주말을 맞아 이 플랫폼에 함께 하는 공방을 중심으로 한 플라마켓과 빈 보컬 이카티와 함께 한 버스킹

공연, 캐리커처 체험존 등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방학 중 침체된 대학가 분위기를 쇄신에 나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기존의 평범한 플라마켓과는 다르게 '싸이월드'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 도토리 쿠키, 포토존 추억의 문방구 등 다양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15팀의 공방이 참여해 각 공방민의 색깔이 담긴 제품을 선보였다. 미미넷 소속 작가들은 "수공예 작품을 직접 제작하면서 클래스를 열어 왔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인원 모집하는 것부터 장소 섭외까지 혼자 힘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캔들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 김모씨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수도권에는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다. 그러던 중 미미넷에 입점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고 또 지역 작가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소규모 개인 작가들에게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예수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전주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이번 평가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본원: 15.93%, 전체평균: 36.06%),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본원: 28.78%, 전체평균: 57.69%), 주사제 처방률(본원: 1.52%, 전체평균: 14.1%)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평가항목을 통해 모두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은 사용률로 평가되어 약제사용에 대한 우수한 병입임을 입증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약제사용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향상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예수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년간 전국 5만1502개 의료기관의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해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예수병원은 2021년 현재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 1등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북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윤삼 기자